

# 외화 돌풍 끝은 1월, 韓 영화 흥행 이어갈까



국내 영화들이 다시금 기지를 폈다. 영화 '말모이' '내안의 그놈' 등이 박스오피스 1, 2위를 나서며 지난해 말 외화에 참패를 당한 명예를 회복했다. 뒤이어 '그대 이름은 잠미' '언더독' '극한직업' '뽀빠이' 등도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 국내 영화의 연속 흥행을 기대케 한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결과 박스오피스 정상은 '말모이'가 차지했다. 14

## '말모이' '내안의 그놈' 박스오피스 1·2위

일 11만403명의 관객을 불러모아 누적 관객수 129만5905명을 달성했다. '말모이'는 일제강점기 말 까막눈 '관수' (유해진)와 조선어학회 사람들의 눈물겨운 '한글 사수기'를 다룬 작품으로, 지난 9일 개봉 이후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실화가 주는 감동과 배우들의 호연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데에 성공했다.

2위는 '내안의 그놈' (9만3543명, 누적 85만8933명)이 차지했다. 그룹 B1A4 출신인 진영이 박성용과 합을 맞춘 보디체인지 코믹물로 비수기 극장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진영의 열연과 적절한 코믹 요소로 객석에 웃음 폭탄을 안기며 흥행 청신호를 알렸다.

두 작품의 흥행은 지난해 연말부터 얼어붙었던 국내 영화 시장의 흥행 침묵을 깬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연말 선수기에 출격했던 박야영 '스윙키즈' 'PMC: 더 벙커' 등은 '하루야' '밤비' '보헤미안 랍서디' 등 외화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저마다 스타 감독과 황금라시니업을 내세웠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열개, 국내 정서와 거리를 좁히지 못한 스토리 등이 참패의 이유였다. 대작들이었지만 누적 관객수 200만 고지를 넘긴 작품은 단 한 편도 없다.

다행히 새해부터는 '작은 영화'들의 선진으로 국내 영화 시장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톱스타 라인업에 제작비를 쏟기보다는 내실을 탄탄히 다지며 작지만 알찬 결과물로 관객들의 돌아선 마음을 붙잡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16일을 기점으로 국내 작품들의 흥행 행보에 또 한번 불을 당길 예정이다.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는 건 16일 개봉인 유호정·하연수 주연의 '그대 이름은 잠미'와 애니메이션 '언더독'이다. 가수를 꿈꾸던 '홍장미' (유호정·하연수)가 의도치 않게 '싱글맘'이 되면서 다가오는 인생역정이 126분간 이어진다. '씨니'와 '응답하라' 시리즈의 복고 트렌드를 지향한 이 작품은 엄마와 딸의 따뜻한 이야기를 그리며 코끝 찡한 감동을 선사한다.

'언더독'은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 '미당을 나온 암탉'



(2011) 오성훈 감독과 당시 애니메이션 부문 감독을 맡은 이준백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인간에게 버려진 개들의 세계를 독특한 상상력으로 구현해낸다. 도경수 박소담 박철민 이준혁 등 스타들이 목소리로 참여해 귀를 즐겁게 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공감할 수 있는 탄탄한 이야기가 102분동안 이어진다.

코믹액션극도 관객맞이를 준비한다. 23일 베일을 벗는 '극한직업'은 '말맛 장인' 이병헌 감독의 신작으로 마야현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치킨집을 위장장점했다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수사극이다.

수승룡, 이하늬, 진진규, 이동휘, 공명 등이 출연하며 신하균, 오정세

가 감독 등장해 '고퀄리티 연기력'을 선보인다. 러닝타임 111분간 B급 개그가 향연을 펼치며, 이하늬와 진진규의 차진 '케미'가 재미를 더한다.

마지막 주자는 '뽀빠이' '뽀소니 전담반'이란 이색 소재를 범죄액션물에 녹여냈다. 통제불능의 스피드광 사업가 '정재철' (조정석)을 잡기 위해 뽀소니전담반의 고군분투를 그린다.

'치니타이론' 한준희 감독의 신작으로 공효진, 류준열, 조정석 등 '잘나가는' 배우들이 한데 뭉쳤다. 순하디 순한 경쟁작들 사이 범죄액션물로서 독특한 개성을 발휘 계획이다. 오는 30일 전국 극장가서 만나 볼 수 있다.

## 300회 앞둔 '셀전' 기록 #JTBC최장수 #평균시청률4.1%



방송 300회를 앞둔 '셀전'의 진 기록이 공개됐다. 지난 2013년 2월 21일 처음으로 방송된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셀전'은 1월 20일 300회를 맞이한다. 정치 시사 이슈와 예능을 접목시킨 이슈 리뷰 토크쇼의 원조이자 JTBC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셀전'의 다섯 가지 진기록을 공개한다.

**# JTBC 최장수 프로그램! 원조 이슈 리뷰 토크쇼로 예능과 정치의 접목**

4.1%

'셀전'은 방송 299회 동안 4%대를 넘어서는 높은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다. 2013년 2월 21일 1.2%의 시청률로 시작한 '셀전'은 299회까지 4.1%(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밤 시간대에 방송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중에 높은 수치로, 동시간대 방송되는 프로그램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 셀전의 최고 시청률 10.2%**

'셀전'은 약 6년 동안 방송된 JTBC 최장수 프로그램이다. 오는 1월 20일 300회를 맞이하는 '셀전'은 2011년 12월 1일에 개국한 JTBC에서 예능, 교양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오래 방송된 간판 프로그램이다. '셀전'의 흥행 이후 다른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포맷의 정치 평론 프로그램들을 선보였지만, '셀전'만큼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 영항력을 발휘하는 시사 교양 방송은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 299회까지의 평균 시청률**

'셀전'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는 이례적으로 10%대를 넘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016년 12월 1일(목) 밤 10시 50분에 방송된 '셀전' 195회는 10.2%(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비지상과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기록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당시 '셀전'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문 발표에 대해 분석했다. 당시 출연진인 김구라 전원혁 유시민은 29일 발표된 담화문과 관련

된 내용을 담기 위해 방송 당일(1일) 새벽 긴급 녹화를 진행하며 시의성을 높였다.

### #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램 시사교양 부문 최다 득표

'셀전'은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에 다섯 번 등극했다. 이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유일한 기록으로 무한 도전 나 혼자 산다를 제외하고 최다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또한 '셀전'은 첫방송된지 2달 후인 2013년 5월부터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20위권에 오른 후, 1위 5회, 2위 9회를 차지하며 약 6년 동안 꾸준히 순위권에 등극했다.

### #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백상예술대상, 한국방송작가상까지! 화려한 수상경력

'셀전'의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약 6년간의 방송 동안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백상예술대상 한국방송작가상 등을 받으며 프로그램의 완성도에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는 이동희 책임 프로듀서가 대통령포장을 받았으며, 제 30회 한국방송작가상에서는 정다은 작가가 예능 부문에서 수상했다.

또한 2017 백상예술대상에서 교양작품상 미디어 미래연구소가 조시한 유료방송 콘텐츠 교양 다규멘터리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시사와 예능을 결합한 뛰어난 포맷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도시경찰', 임용식부터 첫 탐문 수사까지 '색다른 재미'



'도시경찰' 멤버들이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경찰의 삶을 시작했다. 14일 MBC에브리원 '도시경찰'이 뚜껑을 열었다. 배우 장혁, 조재윤, 김민재, 이태환이 서울의 범죄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정면 승부에 나서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날 장혁, 조재윤, 이태환은 경찰이 되기 위한 첫걸음인 사전 교육을 받았다. 민중, 인권, 민생 경찰의 뿌리를 찾아가 하면 임시정부 시절을 돌아보며 역사를 공부했다. 무도실습 현장에서는 체포술을 익혔다. 장혁은 현직 경찰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보여줬다. 조재윤과 이태환도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이 외에도 38권총 사격, 테이저건 훈련 등을 받았다.

세 사람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신입 경찰 임용식에 참석했다. 임명장과 계급장을 받은 가운데 지능범죄수사팀 근무를 명받았다. 용산서민들의 특별한 신고인 백범 김구 기념관도 방문했다. 용산경찰서로 출근한 이들은 신상명세서를 작성했다. 일명 범죄 사냥꾼 이태우 지능범죄수사팀장과 개인면담까지 완료했다.

장혁은 "정복이라는 게, 사람이 웃을 입으면 그에 맞는 분위기가 나

온다", "어떤 상황이 올지 두렵지만 그 상황 안에서 현명하게, 동료들과 같이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환은 "실제로 신입 경찰이 된 느낌이 다. 무슨 일이 펼쳐질까 설레고 긴장되고 괜히 떨렸다. 소속감이 들고 뿌듯했다. 아직 무섭긴 한데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재윤은 "다른 어느 때보다 긴장됐다. '바다경찰'과 느껴지는 기가 완전 다르다. 많은 작품에서 경찰을 했지만 진정성을 갖고 한 건 처음이다. 아무런 사고 없이 민중

경찰 정신을 이어가며 멋진 경찰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MBC 에브리원은 그동안 '시골경찰 시리즈, 바다경찰' 파일럿을 선보였다. 이번에는 '도시경찰'이란 타이틀로 색다른 분위기를 냈다. 100% 리얼을 장담한 예능인만큼 첫 출근에 긴장하고 여색해지는 면모부터 탐문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까지 가깝게 담았다. 가짜 표백제 유통, 후안동 현대 건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 등을 브리핑할 때는 금세 진지한 태도로 녹아들었다. 실제 수갑을 착용하며 경찰의 무게감을 느끼기도 했다.

## 美 빌보드, 여자친구 '해야' 집중 조명

그들 여자친구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영항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자친구는 지난 14일 공개된 두 번째 정규앨범 '타임 포 어스 (Time for us)'는 홍콩,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9개국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에 등극했다.

타이틀곡 '해야' 또한 캄보디아, 홍콩, 말레이시아 1위를 비롯해 총 10개국 아이튠즈 종합 송 차트 TOP10에 진입하며 글로벌 영항력을 과시했다.

미국 유명 배제 빌보드 역시 K팝 칼럼 코너를 통해 여자친구의 컴백을 집중 조명했다. 빌보드는 여자친구의 신곡 '해야'에 대해

"경쾌한 비트로 시작해 여자친구 멤버들이 가장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신스 팝 장르로 변화된다. 특히 노래 후반 은하의 인상적인 고음과 오케스트라 멜로디는 감미로운 노래의 시작을 역동적으로 비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지의 내레이션을 시작되는 뮤직비디오를 언급하며 "겨울을 매력적으로 그려며 노래의 파워풀한 곡조를 우아하게 전달했다"고 극찬했다.

이처럼 여자친구는 앨범을 발매함과 동시에 국내 주요 음원차트 실시간 차트 정상을 점수한 데 이어 해외 차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대세 걸그룹임을 입증했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음력 12월 11일)



▶**띠** 한길씩 나아가는 자세가 길한 격. 1, 3, 5, 9월생은 고집이나 주저함은 행운을 놓치게 하니 끈기있는 자세를 갖되 당당함을 잃지 말 것. 7, 8, 9, 10월생은 그 동안의 공로를 상사에게 인정받았으니 기뻐하는 하루가 되겠다.



▶**띠** 1, 3, 5월생은 상대가 당신을 따르고 충고한 말을 그냥 흘려 넘기지 말고 달게 받아라. 1, 6, 8월생은 완고하게 자신 입장만 지킬 게 아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현실에 적응하면 따르는 이 많을 듯. 아랫사람의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때.



▶**띠** 4, 5, 7, 9월생은 일이 아무리 안 풀려도 지나친 신경은 쓰지 마라. 특히 1, 3, 5월생은 여행으로 인한 여독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다면 건강 체크를 꼭 받아 보는 게 좋겠다. 오늘 물건을 잃어버리기 쉬우니 조심할 것.



▶**띠** 쉽게 얻으려 들면 일이 더 꼬일 수 있으니 1, 3, 5, 7, 9월생은 정도를 걷을 것. 범, 용, 돼지띠는 자신에게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니 그의 말과 뜻에 순종함이 좋을 듯. 2, 5, 10월생 남자는 금년에 새 식구가 나는 격.



▶**띠** 먹구름이 짙고 많은 태양이 떠오르는 격. 7, 8, 9월생은 그동안 막혔던 금전관계가 상순한다. 직장인이나 의학, 자영업자는 구리를 황금으로 바꾸는 황재수가 있으니 4, 5, 10월생이라면 오늘을 기대해도 좋을 듯.



▶**띠** 4, 7, 11월생은 명예를 기대한다면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우둔할 정도로 성실한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되니 1, 3, 5월생은 매사 분수를 지키도록 할 것. 모든 일에 솔직하게 일을 처리하면 말, 닭, 소띠가 당신 편이 되어 줄 듯.



▶**띠** 2, 7, 12월생 남성은 하는 일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힘이 모자라서 추진력이 미흡할 수 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나 타인 7, 8, 9월생의 힘을 빌리면 대성할 수 있겠다.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어도 참으라.



▶**띠** 어떤 욕망이 1, 9, 10월생 당신을 지배하려 들면 반대되는 방법을 써서 억제하도록 하라. 허영심에는 비참, 분노에는 온화의 마음을 대조시켜 볼 것. 별거중인 1, 3, 5월생은 전화 다이얼을 돌려보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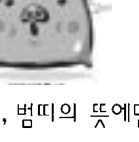
▶**띠** 1, 5, 9, 10월생은 밖에서는 활달해 다른 곳에 눈 돌리면서 잘 어울린다.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매사 하지 않으니 같이 사는 사람과 언행이 다를 수 있다. 구설수를 조심하고 귀가에 신경 쓸 것. 증권, 가이드, 음식, 목재계 중 사자는 인내가 익다.



▶**띠** 1, 3, 5월생은 이야기하기 위해 사람 찾아다니는 것도, 담화를 도피하는 것도 다 피해야 할 양극단이다. 후자보다 전자로 더 조심해야 할 때다. 사람을 사귀는데 신중을 기함이 좋을 듯. 2, 7, 11월생은 옆 사람 말 따라 움직이다 큰 코 다칠 수 있다.



▶**띠** 남의 것 화려하다 생각 마라. 내 것을 다듬어 요리할 때 더욱 멋진 맛을 낼 수 있음을 알고 실천할 때임. 2월생 중 1, 3, 5월생은 현재만 생각 말고 미래를 위해 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라. 동갑 부부는 언쟁 조심할 것.



▶**띠** 1, 3, 5월생은 세월에 잡을 수 없다. 시간을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발전을 위해 힘써라. 7, 8, 9월생은 보다 더 힘써야 할 때임. 노력하면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원숭이, 말, 범띠의 뜻에만 맡기지 말고 주관있는 자세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